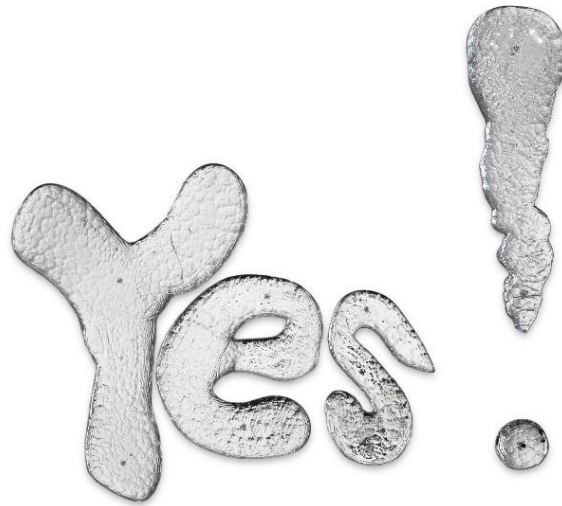


연약하지만 영원한 유리가 품은 우아한 우주

**더페이지갤러리에서 롭 윈의
한국 첫 개인전 <After Before> 개최**

- 더페이지갤러리 웨스트(WEST)관에서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
- 뉴욕 기반의 세계적인 시각 예술가 롭 윈의 한국 첫 개인전
- 유리를 독특한 방식으로 가공한 텍스트 및 추상 조각 설치 작품 조각 총 20여 점 전시



[사진: 롭 윈, YES!, 2022년, 유리, 21 x 25 cm. /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2022년 8월 12일 - 더페이지갤러리는 '유리'를 주재료로 한 유기적인 형태의 텍스트 및 추상 조각 설치 작품으로 유명한 뉴욕 기반의 세계적인 시각 예술가 롭 윈(Rob Wynne)의 한국 첫 개인전 <After Before>를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뉴욕의 프랫 대학교(Pratt Institute)를 졸업한 롭 윈의 작업은 조각부터 회화, 드로잉, 콜라주, 설치, 사진, 보석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작업 초기 산업 재료를 사용한 조각, 회화 작업 등을 주로 선보였던 롭 윈은 1990년대 초에 우연한 기회로 유리라는 매체에 매료되어, 이후 그의 작업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다.

롭 윈은 어느 날 녹인 유리를 담은 국자를 손에서 놓친 순간 바닥에 쏟아진 액체 상태의 유리가 여기저기 튀며 만들어낸 모습이 마치 '우주 폭발'처럼 보였다고 표현한다. 유리를 주형 틀에 부어 정해진 모양의 조각을 찍어내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녹인 유리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 원하는 형태로 붓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을 만드는 데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흘러내리는 듯한 유기적인 형태로 굳힌 유리 뒷면에 은박을 입혀 처리한 롭 윈의 유리 조각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효과를 낸다.

특히 텍스트를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사용하는 롭 윈은 문학이나 오페라, 일상대화 등에서 가져온 한 구절을 유리 조각으로 만든다. 관객은 롭 윈의 의미심장한 텍스트 작품을 읽는 동시에 그것을 읽고 있는 자신을 거울 유리를 통해 비추어 보게 된다. 한편,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작은 피스들로 이루어진 추상 조각 작품은 작가의 매뉴얼에 따라 벽면에 설치되어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국내에서 유명한 롭 윈의 작품은 2015년 개관한 하우스 오브 디올에 전시되어 있는 자도르(J'adore) 텍스트 조각과 미러 글라스 장식이다. 2019년 8개월의 개보수 이후 새롭게 문을 연 미국의 노턴 미술관에는 3개 층의 계단 벽면 전체를 거울 조각으로 채운 그의 작품이 영구 설치되기도 했다.

더페이지갤러리에서 한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개인전의 제목 "After Before(애프터 비포)"는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보게 만드는 구절로, 아름답게만 보이는 롭 윈 작품의 양면성과 의외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YES!(예스!), BLUE COMPOSURE(푸른색 구성) 등 2022년 최신작을 포함한 총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기간 내에 진행될 국내 최대의 아트페어 행사 키아프 서울 2022에서도 롭 윈의 작품이 더페이지갤러리 부스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더페이지갤러리 웨스트(WEST)관에서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 예매 후 관람할 수 있다.

아티스트 소개

롭 윈 (Rob Wynne, American, b.1948)

뉴욕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롭 윈은 1981년 더 키친(The Kitchen)이라는 비영리 공연 및 실험 예술 기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뉴욕의 홀리 솔로몬 갤러리를 비롯해 파리, 제네바, 팜비치, 필라델피아 등 유수의 갤러리에서 25회 이상의 개인전과 60회 이상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폴록-크래스너 재단(Pollock-Krasner Foundation)에서 상을 받았으며, 파리의 풍피두 센터,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 및 휘트니 미술관, 뉴욕 공공도서관 등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롭 윈은 그의 작품에서 문학, 오페라, 연극은 물론 일상 대화에서 가져온 텍스트와 이미지의 단편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유리 외에도 연기(smoke), 자수, 페인트, 실, 청동 및 도자기를 사용한 작업을 선보여왔다.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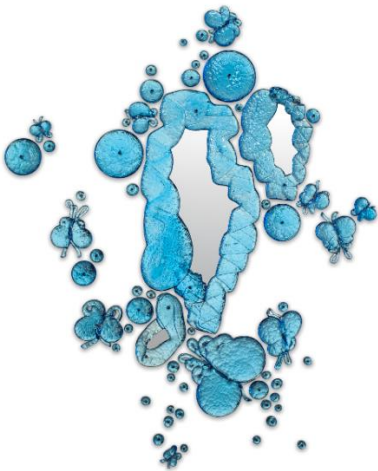
- 2022 "REFLECTION", GAVLAK Gallery, Palm Beach, FL
"Radiant Darkness", Galerie Mitterrand, Paris, France
- 2020 "Speechless", Locks Gallery, Philadelphia, PA
- 2019 "I Remember Ceramic Castles, Mermaids & Japanese Bridges", Norton Museum of Art (영구설치)
"Rob Wynne FLOAT", The Brooklyn Museum, Brooklyn, N.Y.
- 2017 "OH2/H2O", GAVLAK Gallery, Palm Beach FL
- 2016 "BLINDSIGHT", Arthur Roger Gallery, New Orleans, LA
"A Distant Mirror", Galerie Mitterrand, Paris, France
"Blue Ghost", 39 Great Jones, New York, NY
- 2014 The Backstage of the Universe", Gavlak Gallery, Los Angeles, CA
- 2013 "The Lure Of Unknown Regions Beyond The Rim Of Experience" Locks Gallery, Philadelphia, PA.
"The Green Ray", Gavlak Gallery, Palm Beach, Florida
- 2012 "I Remember Ceramic Castles, Mermaids & Japanese Bridges", Norton Museum of Art, West Palm Beach, Florida
"Remember Me", JGM. Galerie, Paris, France
- 2011 "Incognito", Locks Gallery, Philadelphia, PA
- 2009 "Kismet", Gavlak Gallery, Palm Beach, Florida
- 2008 "Like the Flickering of a Candle", Locks Gallery, Philadelphia, PA
- 2006 "The Heartbeat of a Bird", Craig Starr Associates, New York City
"French Kiss", JGM. Galerie, Paris, France (curated)
- 2004 "Imitation and Disguise", JGM. Galerie, Paris, France
- 2001 "New Work", Galerie Edward Mitterrand, Geneva, Switzerland
- 1999 "You're Dreaming", Holly Solomon Gallery, New York City
"Breathe" Rebecca Ibel Gallery, Columbus Ohio
- 1998 "Rob Wynne: Glass Sculpture and Word Drawings" JGM. Galerie, Paris, France
- 1996 "Sleepwalking", Holly Solomon Gallery, New York City
- 1994 "Window Shopping" Grey Art Gallery,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City
- 1981 Sphere Redux", The Kitchen, New York City (installation)

주요 작품 소개



[사진: 룽 윈, YES!, 2022년, 유리, 21 x 25 cm. /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룽 윈은 일본의 하이쿠 등 시 문학, 오페라, 혹은 일상에서 들은 대화에서 가져온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텍스트 작업을 해왔다. 본래의 맥락이 사라지고 때로 작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도 하는 텍스트는 전시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며, 관객 각각에게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룽 윈은 한 인터뷰에서 “Yes”라는 단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생동감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Yes” 조각이 주는 긍정적인 힘은 공간에 활력을 선사한다.



[사진: 룽 윈, BLUE COMPOSURE, 2022년, 유리, 47 x 38 cm. /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개념적 텍스트 작업을 꾸준히 해온 룽 윈은 녹인 유리로 원하는 형상을 자유롭게 그려낸 추상 조각을 시도한 이후 이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켜왔다. 유리의 가소성을 이용하여 마치 물감을 짜내듯 만든 작품은 회화적이면서도 조각이며, 예술과 디자인, 공예의 전통적 경계를 허문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유리를 떼내어 빠른 시간 내에 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무용처럼 이어지고, 만들어진 수백, 수천 개의 조각들을 가지고 설치를 위한 도안을 만드는 작가의 모습은 설계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진: 룽 윈, I HAVE BEEN LOOKING FOR MYSELF, 2015년, 마일라 필름에 글리터, 31 x 27 cm. /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룽 윈의 유리 조각작품은 은도금되어 빛을 난반사시키며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한다. 그는 유리 외에도 연기(smoke)나 실 등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며 그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연구해왔는데, 이 작품은 포장재로 흔히 사용되는 마일라(Mylar) 사의 절연 필름 위에 글리터로 글자를 쓴 것이다. 글자의 내용과 같이 감상자는 작품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감상자는 작품을 바라보는 동시에 작품을 이루는 주체가 되면서 작품과 작품 속 텍스트, 관객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된다.

더페이지갤러리(The Page Gallery) 소개

2011년 개관한 더페이지갤러리는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현대미술을 대중과 매개하는 한국의 대표 갤러리로 입지를 다져왔다. 최명영, 김춘수, 나점수 등 한국 대표작가들의 전시에 주력하는 한편 참신하고 실험적인 기획전시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외작가들의 전시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한국 미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500호 이상의 미술관급 대형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EAST관, 대규모 전시부터 소규모 전시까지 다양한 성격의 전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WEST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페이지갤러리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 포레 G205

운영: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문의: 02-3447-0049 info@thepage-gallery.com